

학동기의 천식과 아토피의 발병 및 경과: 3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3년간 코호트 연구

서울의대 내과

반준우*, 김태범, 손성욱, 김선신, 장윤석, 김윤근, 조상현, 민경엽, 김유영

배경: 유아와 학동기 이전의 소아에서 천식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학동기에서 천식의 발병과 경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동기 아동에게서 천식의 발병 및 경과를 알아보고자 전향적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굴농장이 있는 농촌지역에 사는 7-12세의 학생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피부단자시험,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을 3년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 1) 현증천식의 유병률은 3년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7.5% vs. 3.8%), 3년간의 천식 발생률은 5.9%였다.
- 2) 3년후 현증천식의 유병상태 및 추적관찰 기간 동안의 현증천식의 발생과 관련된 기저위험인자로는 기관지과민성, 아토피가 유의하였고, 피부단자시험 양성률 보이는 흔한 흡입성 항원중에는 집먼지 진드기, 굴농애, 일본삼나무 꽃가루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3) 아토피의 유병률도 3년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48.2% vs. 31.7%). 감작을 일으키는 흔한 흡입성항원 중에서 굴농애가 피부단자시험 양성률이 12.2%에서 30.9%로 매우 증가하였으나, 다른 흔한 흡입성항원은 그 기간동안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굴농장이 있는 농촌지역 소아의 천식은 학동기 이전에 비해서 학동기에서 더 발생하고, 굴농애가 아마도 학동기 천식의 발병에 중요한 알레르겐일 것으로 생각된다.

천식 환자에서의 연령에 따른 알레르기 피부 반응과 혈청 특이 IgE 변화 비교

순천향 대학병원 내과학교실

이준혁, 박성우, 김기업, 어수택, 김용훈, 박춘식

배경 :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검사위치, 연령, 인종, 계절, 병적 상태, 약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연령은 50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에서 피부 반응이 감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이 연령에 따른 항체 형성의 감소 때문인지 또는 피부의 반응만의 감소인지는 알 수 없다.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연령에 따른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피부 반응 정도와 혈청 내 특이 IgE 변화를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기관지 천식으로 확진된 118명을 대상으로 하여 집먼지 진드기 2종(D. farinae, D. pterissinus)에 대한 즉시형 알레르기 피부 반응과 혈청 특이 IgE를 FAST로 측정하였다. 20대에서 70대까지의 피부반응 양성률과 특이 IgE 양성률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고,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두 군으로 나누어, 각 군에서 피부 반응 양성률과 혈청 특이 IgE 양성률을 비교 관찰하였다.

결과 : 20대에서 70대까지의 6개 연령군에서 피부 반응 양성률과 특이 IgE 양성률을 모두 연령군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50세 미만군에서 피부반응과 특이 IgE 양성률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고($p < 0.001$), 50세 이상군에서는 유의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결론 : 연령의 증가는 피부의 면역반응과 혈청 항체 농도 모두를 감소시켜, 단순히 피부 반응의 반응 감소가 아닌 항체 형성의 감소일 것으로 사료된다.